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에게



사춘기 자녀를 키우는 것이 이토록 가슴 찢어지는 일인 줄 알았더라면 나는 다른 건 다 제쳐두고 몇 해 전부터 내 마음에 근육을 단단히 쌓는 훈련부터 해 두었을 것이다. 그리고 아이를 더 많이 안아주고 원 없이 사랑한다고 말해 주었을 것이다. 올해 중2와 중1인 우리 집 10대들의 사춘기 에피소드들은 그들의 프라이버시를 생각해 자세히 언급하지 않겠지만 뭐가 되었든 나에게서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시리고 아팠다. 아이들이 엄마를 쳐다보는 gaze가 미안하거나 버르장머리 없는 말투, 문 광, 단답형 대답 등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울화를 치밀게 했고 어느 날은 너무 허망하고 우울해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여기서 잠깐 "라떼는..." 을 시전 해본다면 나를 비롯해 지금의 내 또래인 40대 중반 이상은 대부분 "지들이 알아서 자란" 시대를 살았다. 알아서 학교에 다니고, 학교에서 교우문제가 있어도 알아서 해결하고, 과제와 준비물은 알아서 챙기고, 갑자기 비가 쏟아져도 알아서 대처하고, 짝사랑도 연애와 이별도 다 알아서 하는 게 당연한 줄 알던 시대이다. 먹고사는 것이 가장 중요했고 부모의 주된 임무는 의식을 해결해 주는 것으로 자식들의 감정까지 살펴줄 여력이 없던 시대였다. 사춘기? 우리라고 왜 없었겠는가? 몸이 크고 뇌가 변하고 감정이 요동치는 시기인데 저마다 질풍노도의 시간을 보냈겠지만 드러낼 수는 없었다. 숨을 죽이고 발톱을 숨기고 그렇게 사춘기를 지낸 우리들이 이제 사춘기 자녀의 부모가 된 것이다.

지난 1년간 사춘기 자녀와 부딪히며 자아성찰, 목상, 심리상담, 독서, 강의, 지인들과의 대화 등등을 통해 깨달은 몇 가지를 공유할까 한다. 물론 이는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고 장성한 자식을 둔 선배님들이 보시면 가소롭기 짝이 없겠지만 나 스스로를 위한 기록으로도 의미가 있고 내 주변에 나와 비슷한 처지의 부모들이 많기에 정보 공유 차원에서 이렇게 정리해 본다.

기다려라.

자녀가 말할 때까지, 원할 때까지 먼저 말하지 않는다. 아

이는 필요하면 찾아온다. 그전에 굳이 찾아가서 점심 뭐 먹었니? 배고프니? 피곤하니? 숙제했니? 양치했니? 물어볼 필요 없다. 그들은 이를 애정 어린 관심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참견과 통제라고만 받아들이기 쉽다. 꼭 먼저 해야 할 말이 있다면 절대로 길게 주저리주저리 말하지 말고 간결하게 말한다. 이야기가 길어지면 그냥 듣기 싫은 잔소리가 될 뿐 정작 중요한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는다. 불필요한 말은 최대한 참고 내뱉지 않아야 하고 꼭 해야 할 말은 짧고 간결하게 해야 한다.

규칙을 정하라.

사춘기 아이라고 모든 것을 수용하고 모든 자유를 허용할 수는 없다. 혼란스러울수록 울타리가 필요하다. 규칙은 내가 정해서 통보하지 말고 아이와 의논하여 함께 정한다. 가능하면 아이가 말한 대로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그게 너무 터무니없는 것이라면 서로 조율하여 결정한다. 내가 정한 규칙은 크게 두 가지로 통금 시간과 취침 시간이었다.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고부터 스마트폰 사용, 귀가 시간과 취침 시간 때문에 내가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것 때문에 신경 쇠약이 올지경에 이르렀다. 결국 규칙의 필요성을 깨닫고 귀가 시간은 아이들이 직접 정하게 하고 스마트폰을 제어하지 않고 자유를 주되 정해진 취침 시간까지 안방에 태블릿과 함께 반납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공감과 통제는 수도 없이 충돌했지만 어느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공감하되 통제도 필요한 것!

거리를 뒤라.

나도 사람이다. 아이가 버르장머리 없이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가 되어 가슴을 후벼 판다. 수도 없이 빈정삼고 뒤돌아서면 왈칵 눈물이 쏟아지고 어느 때는 너무 분하고 답답해서 단전에서부터 한숨이 터져 나온다. 이럴 때 굳이 아이 곁에 붙어있을 필요는 없다. 혼자 밥 먹게 두지 않겠다며 그 앞을 지켜준다고 감동할 자식은 없다. 보고 있으면 답답한 일이 어디 한둘인가. 잠시 안 봐도 괜찮다. 가까울수록 더 부딪히고 더 힘들 뿐이다. 아이의 사춘기가

시작되었을 때 사뭇 거리를 두는 아이를 지켜보며 조바심이 나고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었었다. 혹시나 이대로 계속 멀어지면 어쩌지..... 이렇게 멀어진 관계가 사춘기 이후에도 다시 회복되지 않으면 어쩌지 하고..... 하지만 아이가 커가며 부모와 거리를 두고 멀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신생아, 유아, 아동으로 변화할 때도 부모에게 의존도가 다르지 않았던가..... 거리가 생겼다고 관계가 나빠진 것이 아니니 건강한 거리 두기를 실천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사랑하라.

나에게 고운 눈길 한번 주지 않으면서 말을 걸면 통명스레 툭툭 내뱉고 하라는 건 몇 번씩 말해도 안 하면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고마운 줄도 모르고 요구사항만 많으며 늘 나를 불안하게 하고 애타게 하는 존재를 사랑한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다. 짝사랑도 일이 년이면 지칠 대로 지쳐 나가떨어지는 게 인간이 아니던가? 하지만 엄마의 사랑이 그에 굴하지 않는 것을 보면 우리가 굳이 애쓰지 않아도 모성은 그냥 위대한 것이 분명하다. 모성은 단순한 가족의 사랑을 넘어 인류애의 근본이 되는 사랑의 원형이다. 내 아들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누워있을 때 나의 엄마는 오직 내 걱정이 앞섰었다. 그리고 나의 엄마에게 내 아들의 죽음을 알렸을 때 휴대폰 너머로 엄마는 계속해서 "너 어떡하니 우리 딸 어떡해..." 라며 흐느끼셨다. 엄마의 사랑은 그런 것이다. 내 자식보다 먼저인 것도 귀한 것도 없다.

사춘기가 제 아무리 독하다하더라도 내 사랑이 어디 가겠는가? 적당히 거리 두고 기다리다 보면 내 마음에도 근육이 생기고 아이들도 조금씩 여유를 찾아가겠지. 나를 포함한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 모두에게 광명이 있길 바라며.

* 한국에서 중학교 1학년을 마치고 미국으로 건너와 26년 동안 생활했던 필자는 2017년 8월부터 다시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다. 나는야 1.5세 이주민은 '재미교포1.5세 이주민' 인 필자가 한국 생활을 하면서 전하는 생생하고 유쾌한 한국 이야기이다. <편집자 주>



“정상의 자리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이비가 하면 다릅니다.

정상의 자리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집을 사고 팔듯이 정성으로 팔아드립니다. 아이비와 리스팅을 하시면 그 다름을 보여드립니다.

- | | |
|----------------|-------------|
| 01 무료 인스펙션 | 06 무료 홈워런티 |
| 02 무료 스테이징 | 07 무료 집수리 |
| 03 무료 터마이트 리포트 | 08 무료 감정 |
| 04 무료 마켓 분석 | 09 무료 창고 제공 |
| 05 무료 핸디맨 | 10 후불제 페인트 |

*리스팅 커미션 레이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 커미션, 비용 상한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시니어 스페셜 ***

은퇴후 여유로운 인생의 최고의 선택!!

새로 나온 리버스 모기지 플랜으로 **여유 자금/현금** 챙기시고 남은 기간 **집페이먼트 없이** 다운 사이즈 하세요~ 지금 상담 하세요!!

주택/ 상가/ 사업체/ 투자매물 전문 차별화된 전문가의 서비스가 꼭 필요합니다

꿈과 사랑이 싹트는 내 집 마련을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에이전트 아이비를 찾아주세요

- * 새집 분양! 여러지역 새집 매매 경험을 바탕으로 상담부터 투어, 입주하실때까지 자세히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 * 첫 방문시 저와 함께 가셔야 더욱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으며, 매입 거래시 어떠한 수수료도 지불하지 않습니다.



아이비
VICE PRESIDENT
Member of NAR, CAR, PWR
CalDRE#: 02086695

LEAH IVY CHANG REALTOR
LeahChangRealty@gmail.com

949.501.8555

Buena Park: 6561 Beach blvd
Irvine: 8 Corporate Park #220